

# 주간기도정보

2024. 8. 13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전쟁·폭동·쿠데타 와중에도... 한인 선교사 사역은 계속된다  
현지서 알려진 선교지 실상, 한국교회의 관심과 중보기도 요청



전쟁과 폭동, 쿠데타 등으로 전 세계 곳곳이 일촉즉발의 화약고처럼 위태롭다. 현지에 터전을 둔 한인 선교사들은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키는 한편 예배와 사역, 섬김 활동을 이어가면서 한국교회의 관심과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잇따라 암살되면서 중동은 확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진상 이스라엘 선교사는 “이란의 보복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 뉴스에서도 전쟁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쟁 이야기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지 한인교회들은 매일 밤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유 선교사는 전했다. 그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떠난 가족이나 학생들이 돌아오기 어려워진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대부분 한인 성도들과 교회들은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노의 시대에서 자라나는 다음세대에게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 접경국이자 또 다른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본거지 레바논에서도 위기가 감지된다. 김성국 선교사는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남쪽 주민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느끼는 두려움은 현지인보다 커서 해외 선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일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정부 시위 격화로 총리가 해외로 도피한 방글라데시에서는 약탈과 방화로 인한 혼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00여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4일 하루 동안 100여 명이 숨졌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통행금지령으로 외출 시간이 제한됐으며 경찰이 근무를 거부하면서 치안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방글라데시에서 22년째 사역 중인 이민재(가명) 선교사는 “한 지역에서는 통행금지 때문에 교회와 학교 사역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면서 “경제활동마저 여의치 않다. 현지 성도들이 일용직 일자리마저 잃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치안과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왔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지난달 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거세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베네수엘라 지부장인 정원섭 선교사는 “지난 10년간 가난 등으로 나라가 어려워져 많은 이들이 나라와 교회를 떠났고 이 중엔 목회자도 있다”면서 나라를 회복시킬 새 정부가 들어서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시작된 군부 쿠데타 사태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서 사역 중인 강성원 선교사에 따르면 치솟는 물가와 실업률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강 선교사는 “미얀마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접속을 차단한 예도 있다”고 전했다.

숨 막히는 상황에서도 현지 교회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고 강 선교사는 덧붙였다. 그는 “양곤 등 몇몇 지역에서는 군경이 교회에 불시에 들이닥쳐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당을 폐쇄시키는 일도 비밀비재하다”며 “그럼에도 현지인들은 묵묵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11)**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21:31-33)**

하나님, 심한 한난 중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두려움으로 신음하는 열방 곳곳에 유일한 소망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한인교회와 선교사님들, 현지교회들을 두서서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난리, 소요의 소식을 듣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 안일함을 깨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열방의 형제자매들과 목숨을 다해 선교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간구함으로 돕는 일에 생명 다하여 부르짖게 하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기도의 연합으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가난한 심령들이 주께 나아와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속히 이뤄주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구하노라”

**컴퓨터·정보통신 기술 배우려는 북한 청년들 급증...무슨 일?**

강한 통제에 위축되지만 외부정보 호기심 여전히 높아...



최근 북한에서 컴퓨터나 정보통신(IT) 기술을 배우려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통제를 피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려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전언이다.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청진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배우려는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국가가 외부 정보 접근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청진시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당국의 통제, 차단 시스템을 우회해 불법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에게서 몰래몰래 배우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2-3명씩 비밀리에 학습 모임을 조직해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체득하고 있다.

10대 학생들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고 각자 알게 된 내용을 서로서로 내밀하게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보위, 안전, 검찰 등 법기관을 내세워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 등의 콘텐츠를 포함한 외부 정보의 유입과 유포를 단속하며 강하게 처벌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 특히 호기심이 강한 청년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한국 영화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0-20대 청소년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콘텐츠와 새로운 문화,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는 여전히 높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남조선(한국) 영화 등 불순녹화물을 시청했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청년들이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경험이 최소 2번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청년들은 국가의 통제를 피해 남조선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배워 안전하게 외부 정보를 접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최근에는 하나의 열풍처럼 일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는 일부 컴퓨터 전문가들이 단속을 피하며 남조선 녹화물을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기술을 익히거나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프로그램)을 내려받을(다운로드) 수도 있고, 불순녹화물을 보고 난 후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 단속을 피해 외국 문화를 즐길 수 있다”며 “청년들이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배우려는 것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에베소서 1:17-19)**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시편 19:2-4)**

하나님,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의 유입과 유포를 엄격하게 단속하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갈급한 영혼들을 돌아보옵소서. 새로운 문화와 정보들을 접하려는 청년들의 욕구가 진리를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게 하사 낮과 밤에게 전하는 주의 소리가 이들의 심령에까지 미치게 하옵소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무력으로 막으려 해도 거짓된 사상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김정은 정권이 깨달아 스스로 왕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북한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셔서 메마른 영혼이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소서”

### 공교육 회복 위해 기독교사 사명 다짐

‘2024 기독교사대회’ 말씀과 섬의 시간 통해 사명 회복



교권 하락과 과도한 입시경쟁, 저출산 현상으로 다양한 도전을 앞둔 기독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명을 점검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참된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한성준·현승호)이 ‘2024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했다.

8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대회는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섬기는 1,100여 명의 기독교사들이 천안 백석대학교에 모여 오늘날 교육여건 속 기독교사의 역할을 함께 고민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의미가 남다르다. 코로나19 이후 무려 6년 만에 현장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기독교사대회는 ‘틈만 나면’이라는 주제로 한국 교육에 새로운 틈을 내겠다는 다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주강사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원로)가 ‘인간이라는 소명’ ‘피라미드 세상을 넘어’ ‘예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세 편의 설교를 전하며 교육계의 도전에 직면한 기독교사들에게 이정표를 전했다.

아울러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가 둘째 날 주제 강의를 통해 기독교사로서의 관계 회복과 가르침을 되살리는 본질적인 역할을 짚어보고, 셋째 날에는 현승호 공동대표가 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을 회고하며, 교육주체자로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승호 공동대표는 강의에서 “교권이 하락한 가운데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는 서로에게 담을 높이 쌓아가며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한다”며 “3주체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므로 ‘각자도생’의 학교가 됐다”고 짚었다.

또 현 공동대표는 “서로를 공감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단계며 그 중 기독교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과 대화”라고 설명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자신의 영적, 정서적 상태를 진단하고 돌볼 수 있을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교사들의 쉼을 도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회 동안 자녀들을 위해 유·초등, 중등 캠프를 마련함은 물론, 제주에서 강원까지 22개의 지역별 기독교사 만남은 물론, 18개의 기독교사 공동체 만남과 참가자 개설 모임이 진행됐다. 또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학급운영과 생활교육’ ‘좋은교사가 만드는 좋은 학교·교육’ 등의 주제로 6개 영역에서 46개의 연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참석자 홍지혜 교사(청계초등학교)는 “서이초 사태 등 교권이 하락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과 함께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말씀과 강의로 다시 한번 소명의식을 점검하고, 함께 나누는 소명으로 교사들에게 주어진 도전을 이겨내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승호 공동대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생님들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기독교사의 소명과 현실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과 고민의 간극을 극복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출처: 기독교신문 종합).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시편 143:1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하나님, 교육 현장에 있는 기독교사들이 함께 모여 신앙적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에 고민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거룩한 세대로 회복시킬 유일한 해답이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선포하오니 성경의 권위를 흐드는 세속적 가치관을 거부하게 하옵소서. 학교와 가정, 교회에서 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다음세대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는 진리로 양육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또 다른 다음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